

강진쌀, 지난해 39억원 매출...156%↑

강진쌀판매참여업체협의회 판매촉진 회의 개최

“판매 활성화 · 고객 확보 · 좋은쌀 생산 노력”

강진군이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쌀판매참여업체협의회 회원들과 2017년 협의회 결산 및 2018년 강진쌀 판매촉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2017년 협의회 결산 및 판매성과 분석과 함께 2018년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 확대 방안 및 강진쌀 판매촉진을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강진군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과 조류민생 직거래지원센터와 연계해 공동마케팅을 실시했다.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해온 결과 2017년 9만5000포, 39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대비 156%의 판매실적

을 올렸다. 또 강진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프리미엄 호평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12년 연속 선정되고, 수도권과 광주·전남권 96개소에 학교급식용 쌀을 납품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런 매출을 기록하기까지 강진쌀판매참여업체협의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및 애환운동의 일환으로 자리 잡은 800여 공작지의 일화도 참여,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고정고객에게 감사인사와 미질 좋은 쌀 생산을 다짐하는 군수 서한문 발송, 농특산물 홍보 및 언론, 지하철 광고 등이 다각적인 노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회의 모습

강진쌀 판매촉진 회의에 참석한 강진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인 최영일 회장은 “2017 강진쌀의 대성공에 이어 2018년은 농업소득배가 원년의 해로 정하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5년 이내에 농업인의 연간 순소득 6천만원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강진쌀 판매 활성화와 신규 고정고객 확보, 미질 좋은 쌀을 생산해 강진쌀의 신

뢰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쌀판매참여업체협의회는 판매금액의 1%를 적립해 대의 홍보와 쌀판매 진담직원 배치 등에 적극 활용,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강진쌀 판매 활성화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영암군,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으로 ‘행복 출산’까지

18일 영암읍 시작 매월 3회...검사비 전액 무료

영암군은 오는 18일 영암읍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이 시작된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전라남도 지원으로 도내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역을 대상 불편을 겪어 왔던 임부들을 위해 매월 3회 운영(둘째주 목요일 산후, 셋째주 목요일 영암읍 넷째주 화요일 삼호출장소) 된다.

목포시의료원의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이 의료장비를 갖춘 검진이동버스로 산전기본검사, 초음파검사, 태아염색체 이상 및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등을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하며 전액 무료로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어 호응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임신 전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 중에 엽산제 철분제, 출산교실 운영, 산전검진 쿠폰 지원, 출산 후 신생아 양



육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모유수유 유촉기 대여 등 시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며, 임신하면 먼저 관할 주소지 읍면 보건지소에 등록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안내하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허전한 한자녀! 흐뭇한 두자녀! 든든한 세자녀!”란 슬로건으로 ‘결혼의 긍정적 가치관 제고와 출산 지원 혜택,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곡성 동약산, 대한민국 대표명산 거듭나다

“명품숲길 조성사업 통해 새로운 모습 선보일 것”

곡성군은 곡성 대표산인 동약산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시켜 더 많은 등산객을 유치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거듭나기 위해 37억원의 사업비로 명품 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약산 명품숲길 조성사업은 16년 기본설계용역과 17년 시설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6개월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곡성의 관광거점으로 조성되며 국민의 건강증진, 트레킹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도록 쾌적하면서도 안전한 숲길로 달라진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본 사업은 곡성읍 월봉리 산27-1의 27필지 13.6km 구간에 신규 숲길을 개설하고 훼손된 기존 숲길을 정비하는 한편, 로프난간 등 4종의 안전시설물과 휴게데크 및 전망데크, 데크난간, 목재난간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숲길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등산로 시작 지점인 도림사 오토캠핑장 주변 숲에 에코어드벤처시설을 설치하여 곡성을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모험정신과 패미리함을 키울 수 있도록 하면서도 안전장구 착용 없이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쏫브릿지 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등산객



과 관광객 모두에게 숲속에서 모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재미를 선물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곡성을 만들 생각이다.

계곡부에는 네트드벤처 시설로 휴식을 즐기면서 이색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숲길 체험코스를 만들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배냇이재 구간 평탄지에는 산수국과 꽃무릇 164,700본을 식재하여 하늘에 초화류 공원이 펼쳐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하늘공원을 조성하고 허공에 떠있는 체류공간인 행잉 트리 하우스 설치로 숲속과 하나되는 재미있는 체험공간 제공으로 자연 생태를 직접 체험 할 뿐만 아니라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동약산 명품 숲길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면 전국의 많은 등산객이 찾는 유명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하당 청소년문화센터 조감도

목포시, 청소년 위한 보금자리 마련 시동

하당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공사 최종 용역보고회 개최

목포시가 청소년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보금자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시는 지난 12일 하당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공사에 따른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중간용역보고회와 청소년과 청소년 활동 전문가들이 참여한 건립심의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한 후 여성가족부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고 이날 보고회를 열었다.

시 관계자, 도의원·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하당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공사가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 점검에 지혜를 모았다.

하당 청소년문화센터는 원도심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센터를 이용하기 힘든 하당 지역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총사업비 29억6천4백만원이 투입되며, 연면적 1,200㎡, 지상 3층 규모로 올해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교육도 배달됩니다” 해남군, 늘찬배달강좌 인기

상반기 111팀 1350명 참여

군민들을 찾아가는 평생학습서비스, 해남군 ‘늘찬배달강좌’가 주민들의 호응속에 15일부터 실시된다.

군은 올 상반기 건강·체육·미용·음악·국악·미술·공예, 언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11팀 1350명의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배달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2015년 시작해 올해로 4년째를 맞는 땅끝누리 늘찬배달 강좌는 군민 10명 이상만 모이면 강사가 찾아가 강좌를 진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로 지금까지 총 541팀, 68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교통 불편 등 교육 여건이 어려운 면단위 취약지역의 주민과 평생교육기관의 강좌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던 직장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평소 듣고 싶었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하반기 강좌는 6월중 모집하여 7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양국악분야와 캘리그래피, 리스클레이 등 미술공예 분야의 신청이 증가했다. 참여자들은 상반기 동안 주 1회, 총 20시간의 강좌에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늘찬배달을 통해 신청할 정도로 새로운 평생교육의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며 “군민 누구나 원하는 강좌를 편리하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우수강사 확보 등 내실을 기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반기 강좌는 6월중 모집하여 7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